

Neighbor

최고의 삶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네이버>

SPECIAL THEME
HORROR



*Paris, le 24 Decembre 1886,
de M. E. Heuer
Lücher*

7

JULY 2013



TAGHeuer
SWISS AVANT-GARDE SINCE 1860

식
물
과
인
간,
갑
과
을,
공
존
과
예
의



예의를 잃지 맙시다, 2012, Inkjet print, 110×110cm, 이미지 제공: 염중호, Photo: Courtesy of the artist.



예의를 잃지 맙시다, 2012, linkjet print, 110×110cm, 이미지 제공: 염중호, Photo: Courtesy of the artist.



예의를 잃지 맙시다, 2013, Inkjet print, 110×110cm, 이미지 제공: 염중호, Photo: Courtesy of the artist.



글을 쓰는 에디터에게도 한 가지 강박이 있다. '그렇듯한' 글을 써야 한다는 것. 하지만 늘 강박과 글의 밀도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만이 돌아올 뿐이다. 사진작가 염중호. 그 역시 '그렇듯한' 사진에 대한 나름의 강박이 있었다. 평범하지 않은, 기발하고 실험적인 사진을 찍어야 할 것 같은 강박 말이다. 세계적인 사진작가 낸 골딘과의 만남을 통해 그는 이러한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주는 '편안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8월 10일까지 하이트컬렉션에서 열리는 <예의를 잃지 맙시다(Let's Remain Courteous)>전의 작품 역시 그 연장선이다. 이 전시 제목은 미셸 우엘벡의 소설 <지도와 영토>의 주인공이 초대된 그룹전의 전시 제목이기도 하다(소설의 주인공인 제드 역시 사진작가로, 그는 차후 화가로 변신하며, 말년엔 비디오 영상을 찍는다). 50점에 달하는 염중호의 사진 속에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 등장한다. 그러나 사진 속 식물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뿌리 뽑힌 채 방치되어 있거나 미관상의 이유로 절단된,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인간에게 길들여진 식물이 등장한다. 그들은 인간 중심의 환경 속에서 처절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 이쯤 되면 또 다른 종족 하나가 떠오를 거다. 그렇다. 바로 동물이다. 작가 역시 이 식물들의 삶이 인간에게 지배되는 동물들의 삶과도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인간의 입맛에 맞게 동물원 속에 길들여진 동물과 사진 속 식물은 교묘히 닮아 있다. 사실 그의 사진은 얼핏 보면 사회적·정치적 이슈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자칫 '주변의 버려진 식물에 대해 관심을 갖자' 정도의 아주 임팩트 있

1 예의를 잃지 맙시다, 2012, Inkjet print, 40×40cm, 이미지 제공: 염중호, Photo: Courtesy of the artist.
2 예의를 잃지 맙시다, 2013, Inkjet print, 40×40cm, 이미지 제공: 염중호, Photo: Courtesy of the artist.

는 캠페인 사진쯤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염중호는 영리하게도 인간과 식물이라는 은유적 장치를 통해 21세기가 진정 필요로 하는 화두를 꺼내놓는다. 그의 사진은 우리로 하여금 '공존에 대한 예의'를 고민하게 만든다. 인간이 식물에 대해 취하는 예의, 나아가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예의 말이다. 21세기의 새로운 계급인 갑과 을. 작가는 인간과 식물이라는 갑과 을을 통해 진정한 '공존'을 되묻는다. 재미있는 것은 그의 사진 속 식물은 안쓰럽고 무기력한 존재로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작가의 상상대로라면 그들은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식물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삶에 대한 투쟁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바라볼 뿐이다. 덕분에 관객은 더욱 리얼한 실재와 그 안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를 떠안게 된다. 이제 마지막 궁금증 하나가 남았다. 작가는 왜 굳이 <지도와 영토>라는 소설 속 전시 제목을 끌어들었을까. 단지 주인공 제드가 사진작가라서? 생의 말년, 탄탄대로를 달리던 제드는 치열하고 다난했던 기억을 뒤로한 채 어느 시골 동네에 정착해 비디오 촬영에 몰두하게 된다.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제드의 비디오 카메라가 향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식물(자연)이었다. '사회 한복판에서 개인은 한낱 짝막한 픽션에 지나지 않았다.' 제드의 탄식처럼 결국 인간은 노화되고 소멸되며, 남은 승자는 식물이었던 것이다. 자, 이제 염중호 작가는 기본 좋게 외칠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 모든 식물들에게, '예의를 잃지 맙시다!'. III Editor 설미현 Cooperation 하이트컬렉션(02-3219-0271)

3 예의를 잃지 맙시다, 2013, Inkjet print, 110×110cm, 이미지 제공: 염중호, Photo: Courtesy of the artist.
4 예의를 잃지 맙시다, 2013, Inkjet print, 60×60cm, 이미지 제공: 염중호, Photo: Courtesy of the artist